

도명 선사 20주기 다례재

3월 28일 고성 화암사사...1백여명 참석
범어집 <봄은 가도 꽃은...> 봉정식도 봉행



담연당(湛然堂) 도명선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와 범어집인<봄은 가도 꽃은 남아 있네>봉안법회가 3월 28일 강원도 고성 화암사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명문도회 대표 화암사 주지 동선 스님은 “은사이신 도명 대선사께 법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이 유만으로 우리 문인 제자들은 매우 소중한 법연(法緣)의 기회를 얻었다”며 “은사 스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가르침은 고구정병해 항상 우리 후학들의 수행 생활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명 선사에 도반이었던 영은암 회주 정휴 스님도 법문을 통해 “효의 정신이 점점 없어져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만상좌인 동선 스님의 스승을 향한 효행은 우리 후학 스님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하하며 “도명 스님은 일정사 주지 시절 친분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라면 두루 사찰의 주요 요직에 앉히는 등 사람에 대해 차별과 분별심을 두지 않았다며 이런 도명 선사의 향훈을 우리들도 본받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신승사 주지 마근 스님을 비롯해 1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고성 화암사=김주일 기자**

성관음사 법화경사경 복장 봉안



법화경 성관음사(주지 일우)는 3월 29일 경내 33관음선전에서 제3차 법화경 사경복장봉안식과 주지 일우 스님의 시간 <법화신행 믿음>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 임명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장경사 새 주지에 진광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무실에서 최근 경주 스님의 선운사 주지 선출로 공석이 된 장경사 주지에 진광 스님을 임명했다. 진광 스님은 동명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선운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종일 기자**

“불자님의 따뜻한 손길 기다립니다”

자선 바자회 여는 가수 장미화
4월 14일~15일 서초구청앞서



가수 장미화 씨(사진)가 4월 14일~15일 서초구청앞에서 바자회를 연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바자회는 매년 장미화 씨와 지인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미화 씨는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NGO단체를 결성해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장 씨는 “오랫동안 바자회를 열다보니 후원 업체도 많이 생기고 지인들과 물건 등을 기증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자 마음을 내니 오히려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장 씨는 유망의류업체 지원과 본인의 의류 및 연예인들의 물품 등을 기증받아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다양한 보시행을 실천해왔다.

“지나해에는 수익금으로 진도에 남아 가족을 기다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생필품 지원을 했어요. 이밖에도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인플란트 및 틀니 지원 등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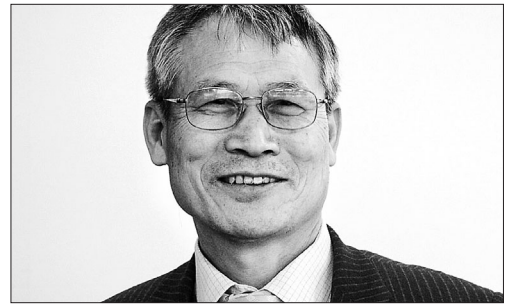
지원을 해왔어요.”

올해도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동참을 한다. 가수 김혜은, 현숙, 김상배, 인티엘르 팜페라 4인조, 신비, 신자유, 편성업, 박종식, 배우 하리수 등이 참석해 물품도 판매하고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장 씨는 “그동안 부족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다녀소도 개최하는 등 한 해마다 자선 행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죠. 이번 바자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물품도 팔아주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불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혜숙 기자**

“눈높이 맞춘 포교활동 펼칠 터”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
정태권 교수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국해양대 정태권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정 교수는 앞으로 ‘대학생 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과거에 비해 대불련 활동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다행히 前회장의 노력으로 현재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죠.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대학생 불자 포교를 위해 ‘정기 법회 활성화’와 ‘눈높이에 맞춘 포교활동’ 불자 지도교수 관심 이끌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불자 교수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아리 지도교수가 없어진 것도 대학생 불교학생회의 침체 원인이기도 하죠. 물론 최첨단의 기계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을 불교로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에 지친 학생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학

생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 교수는 학생들에게 맞는 포교 활동 제공해 줄 계획이다. “저는 대학시절 기독교 심취해 있다가 우연히 <불교와 자연과학>이라는 책을 보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불교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한편,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불교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불교문화 선도, 대학생 불교학생회 활성화 관련 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선운사 운영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개관

고창 선운사가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식 개관했다. 선운사(주지 법만)와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월 2일 고창읍내 월곡뉴타운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법만 스님이 개관식날 육아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개관식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선운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범여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회 의장, 김병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100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법만 스님은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을 계기로 선운사는 명실상부하게 지역 복지를 책임지게 됐다”며 “기존의 어린이집과 고창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에 이르는 고창군민들의 복지를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재단 선운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서 One-Stop 육아서비스를 지원하며, 불교계에서 최초로 위탁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2014년 6월에 건립을 시작해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건축연면적 794㎡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노덕현 기자**

5사단 신병교육대대 신축 법당 기공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27일 경기도 영천 소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 신축 법당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정우 스님을 비롯한 군포교 관계자들이 법당 기공의 삽을 뜨고 있다.

이날 기공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 우스님과 부교구장 승원 스님, 주호영·김영우 국회의원, 주창환 5사단장, 송희섭 6포병여단장, 예비역 장군 불자들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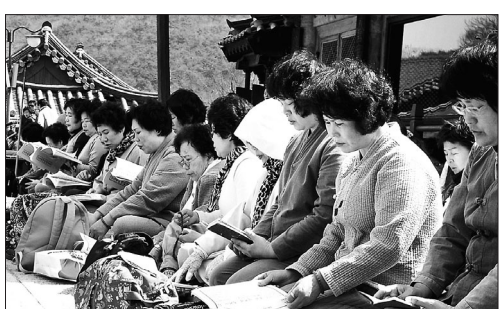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이 법당이 임영한 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주는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5사단 열쇠용사들이 군생활을 시작하는 이곳에서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5사단 전장병을 대표해서 주창환 5사단장은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경기 북부 최전방 지역으로 가는 모든 병사들이 이곳에서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참 불자가 되며 늘 싸워서 이기는 상수 5사단 열쇠 부대의 기개를 가슴에 새기

며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4월 2일 영천 은해사에서 2015년 군승 하안거를 회향했다. 이번 안거에는 200여 군승이 동참했다. 정우 스님은 군승들에게 “포교 현장에서 한몸의 스님으로, 군 업무에서는 장교로서 임무가 막중하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 출가열반제일 프로그램 진행

통도사(주지 원산)는 3월 27일~4월 3일 출가열반제일 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진행했다. 특히, 3월 27일 입재식에서는 석가모니 정근,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법문, 금강경 독송 및 108참배 정진이 진행됐다.



로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하성미 기자**

주지 원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계 없는 허공처럼,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이 중생제도를 위해 출가한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심(52)씨는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니 수행이 더욱 깊어지는 듯하다. 앞으

창원수산자비선원 제2회 불교인 단합대회

(사)창원수산자비선원(원장 법상)은 3월 28일 창원 KBS홀에서 ‘제2회 불교인 단합대회 및 11회 경료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산 스님, 월인 스님 등 120여명의 스님들과 박성호 국회의원과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해 차매, 종풍 등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고 불자들이 힘을 실어주어 불교가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법상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 불교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전국의 큰스님들께서 체육관 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

해인총림 소림선원 하안거 방부모집 공고

해인총림 소림선원에서는 새롭게 방장으로 추대된 벽산당 원각 대선사를 모시고 을미년(2015년) 하안거를 정진할 수좌스님들의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 음

- ◆ 방부 신청기간 : 2015년 4월 19일 ~ 4월 20일 (음, 3월 1일 ~ 3월 2일)
- ◆ 신청 방법 : 전화 055)934-3120 (선원 서기실)

지난 동안거 2015년 2월 방부들인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4월 3일

법보종찰 해인총림 선원장 효담

‘The 열린 불교 아카데미’ 개강

당대의 학승으로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 <치문> <중론> <명추회요> <범보장경> 등 다양한 경전을 읽어낸 선교를 겸수한 원순스님을 모시고 원각경을 공부하는 소중한 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순스님이 여는 원각의 세계에서 편파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의지, 어리석은 구름을 일으킨 범부 중생의 길을 떠난 우리의 본마음, 불보살님의 본마음을 알아가는 자학하지 학행원만自學學地 學行圓滿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 개 강 :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 기 간 : 2015년 4월 20일 ~ 2015년 8월 20일 (4개월 과정)
- 시 간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시간 강의)
- 장 소 :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7(부전1동 401-9) 4층
- 강의비 : 5만원 교재비 : 1만원
- 문 의 : 묘광선원 070-8133-9917, 051-244-0263, 010-3564-3725 / 열린 불교 아카데미

법사 | 원순스님(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송광사·봉암사 등 계방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